



불교 이래서 좋다

강지혜 성신여대 경영학과 1년

아주 어렸을때로 기억한다. 식구들이 모두 외출하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던 어느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지친 나는...



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불교는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편안해 지게 하는 보금자리이자 삶의 지침서이다. 특히 지식으로만 알고 나를 앞세우는 것 보다는...

매일 깨어있는 '삶' 살게 해줘

을 외치며 어머니가 팔리 뚝아 오시길 기원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염주 꼭 쥐고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더니 어젯밤에 갑자기 네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참신기해 했던 기억이 난다.

한 불교에 좀 더 바르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정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접하게 됐다. 수행 활동을 하면서 나는 '아! 좋다! 날마다 깨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가지게 됐다. 방학 기간의 어린이 수련회나 일요일마다 행하는 군법회를 통해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부처님 법 안에서 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하루하루 깨어 날 수 있게 하는 불교가 나는 좋다!

007 '훤불'의 스파이?

불상 앞에서 러브신, 남한 식민지 묘사 "말도 안돼"

불자들 한국불교 이미지 타격 관람 거부 등 강경 대응

배급사 '당혹' "영화는 영화일 뿐" "절대 정치적이지 않다"

12월 31일 국내 개봉예정인 007 시리즈 20편 '다이 어너더 데이(Die Another Day)'의 마지막 장면이 사찰에서 본드와 본드걸의 적나라한 러브신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자들은 자극한 장면은 제임스 본드와 본드걸이 불상 앞에서 벌이는 마지막 러브신이다. 문밖으로 아자수가 있고 불상과 다다미로 채워진 방은 분명 한국의 사찰은 아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본드와 본드걸의 러브신이 한국 사찰의 법당을 연상시키는 곳에서 촬영됐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20세기 폭스 코리아 측은 오히려 영화를 보면 태극궁의 건물이며 한국의 사찰과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다는 대답이다. 그러나 불자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어느 나라가 됐건 불상 앞에서 러브신을 벌인다는 설정 자체에 있다.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여중생 사망사고 무죄판결로 인해 반미감정이 격해지고 있는 요즘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처럼 표현했고 70년대의 낙후된 모습으로 그려냈다는 것에 네티즌들의 감정이 폭발한 것. 11월 22일 미국 개봉시 영화를 관람한 재미교포들에게서 퍼져나 오기 시작한 '다이 어너더 데이'의 한국 및 불교 왜곡 등은 인터넷으로 급속히 퍼져 캄판(상영관의 스크린을 캄포어로 찍은 영화파일)으로 미리 영화를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007관람거부운동까지 불려일고 있는 실정이다. '영화라구 그럴수가 있는지 정말 한국에 대해 모르는 외국인은 그렇게 오해할만하다' (dark), '영화 공짜로 보고 저작권문제 생기면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시라' (ditkgur1209), '007영화 수인거부 했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까워요' (hanrall) 등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배급사인 20세기 폭스 코리아 측은 한국 민들의 이런 반응에 당혹해하면서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미국 본사

의 공식 입장도 '007시리즈는 액션과 어드벤처, 판타지가 어우러진 영화며 절대 정치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네티즌들의 성난 불길은 진화하기에는 미흡하다.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개봉한 영화에서 부처님을 모신 불당에서 러브신을 벌이는 장면을 본 외국인들은 불교를 왜곡되게 이해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 배경을 한국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불교의 이미지도 타격이 크다. 불교계 종단과 단체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nia.com

겨울방학, 청소년들 갈 곳 많은

목동청소년수련관·디지털열린상당실 등 동아리 한마당, 창작활동, 캠프 다양

겨울방학을 맞아 교계 청소년수련관 및 단체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 청소년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12월 21일 오후 4시 수련관내 청소년극장에서 동아리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

사에는 댄스, 풍물, 방송, 성우, 밴드 동아리 등 총 8개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계획이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회는 1월 중순경 충남 아산 윤정사 수련원에서 서울 경기·강원지역 내년도 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부수련회를 개최한다. 또 부산, 충북, 대구지부도 간부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청주 디지털열린상당실도 내년 1월 18일-20일 청주시 표충사유교사당과 상당실 시설 등에서 청소년과 소외된 이웃과 불자가 하나되기 위한 제5회 디지털동계 캠프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우리는 선우, 양정청 소년수련관, 청교련 대전지부,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천태종 연리회, 하동청소년수련관 등 교계 청소년 단체들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학생들이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이다. 김두식 기자

Table with 4 columns: 단체 및 수련관, 일정, 행사내용, 전화번호. Lists various youth centers and their activities.

천태종 어린이 교사 연수 교육

대한불교천태종은 11월 30일-12월 1일까지 단양 구인사 인평당 5층에서 제31회 어린이 지도교사 동계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천태종 어린이 지도교사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 교육은 성불도놀이, 찬불가, 민속놀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제10회 보리방송문화상 열려

'귀위의 불자들', '600만년의 만남, 월인석보' 두 작품이 제10회 보리방송문화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12월 5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JRN 프로덕션이 제작하고 KBS1 TV에서 5월 19일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귀위의 불자들' (연출 오승배)과 TJB 대전방송에서 5월 14 21일 방송된 '600만년의 만남, 월인석보' (연출 이종익)가 일반 TV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불교방송부문에는 서울불교방송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본 한국인의 제례의식' (박광열 외)이 연출상을, 서울불교방송의 '그리운 등불하나'의 방귀희씨, 부산BBS의 '부산 아시안게임 특집방송-아시아를 하나로 부산을 세계로', '홍도사 극락암 경보스님 열반 20주기 추모 특집방송-반야심경에 대한빛장을 만져보거라'의 지은아씨가 연출상을, 청주BBS의 '황신묘의 시사포커스 기획특집 2부-홍덕사 복원 그 미래와 전망'을 기획한 강석호씨가 기획상을 받았다. 특별상은 이강호 불교TV 기술부 차장에게 돌아갔다. 강지연 기자

명작 비디오 파일

큐브

17,576개의 큐브로 이루어진 거대한 미로의 한 부분에 당신이 갇혀 있다면? 출구의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당신의 몸은 무참히 조각날 것이다. 1999년 개봉된 빈센트 나탈리 감독의 영화 큐브는 생명을 건 탈출기이다. 나가기 위해서는 큐브들이 배열된 법칙을 알아야 한다.



경찰 쿠엔틴, 여의사 할로웨이, 겁 많은 소녀 리본, 냉소적인 인물 워스, 탈출 전문가 렌, 자폐증 환자 카잔.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 목숨 건 탈출을 시도한다. 더 이상의 탈출방법이 없어 보이는 순간 자폐증 증상으로 고비의 순간마다 일행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했던 카잔이 큐브 안에 갇혀진 마지막 단서를 발견한다. 이들이 큐브 속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은 우리가 무명의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똑같다. 탈출하기 위해 큐브들의 법칙을 알아내려고 애쓰는 영화 속 인물들은 바로 해탈의 길을 찾아나서는 구도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심밀해탈경>에서 비로자나부처님은 굳은 매듭같은 미혹에서 해탈케 하는 것에 대해 설한다. 보살도반을 대상으로 해탈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니 해탈의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강지연 기자

Advertisement for Avatar Center (아바타 센터) featuring a quote: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범운선생 특별지도



◆ 「명상 최면 지도사」 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 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사>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기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전생태형 명상최면-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원격제령 명상최면- 제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기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볼 수 있음.

범운 선생님 약력

- 2001년 SBS '오기심 천국' 출연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2002년 KBS 'VJ특공대' 출연 - '최면의 세계'
한양대학교 졸업
대한 초능력협회 회원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세계 이미포 기공협회 회장
現 '삼경그룹' 고문
(주)화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참가비 300만원)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조산령, 병의령, 죽생령, 천도 및 제령
특강일시: 수시접수
* 나노-파동 명상최면요법
인체내에는 특별한 에너지 중추가 있다. 이 미묘한 에너지 중추는 육체의 내분비선과 주요 신경중추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에너지 장 속으로도 확장되어져 있다. 이것을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chakra)라고 하는데, 사람의 인체에는 일곱가지 차크라가 있다. 이 차크라들을 '나-노 파동요법'을 통하여 수련하게되면 사람에게 따라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어 神通이 열리게 된다. 한 예로, 정수리 차크라는 두뇌 꼭대기에서 비롯되어, 영적인 깨달음과 관련된 차크라인데, 이 차크라를 열게되면 시공을 초월하는 투시기가 될 수 있다.